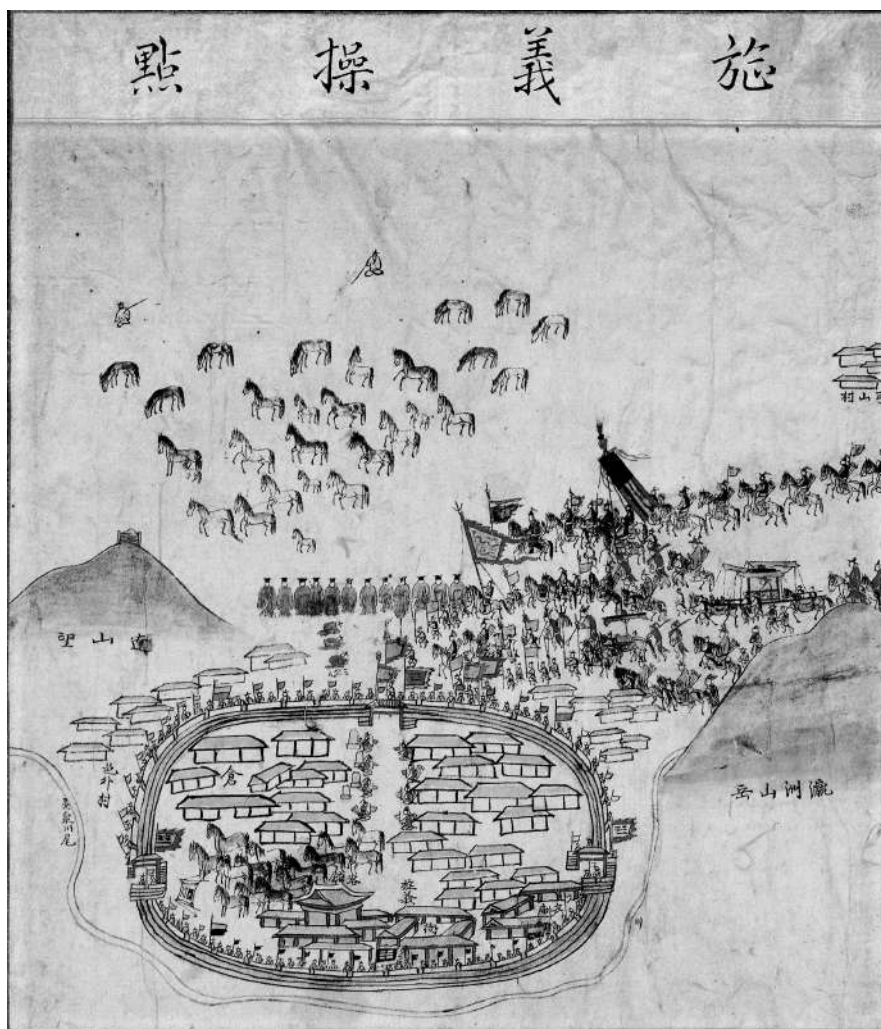


제7장 표선면



표선면(表善面)

표선면의 동쪽은 성산읍
신평리와 신천리에 접하고
서쪽은 남원읍 신흥리와
경계를 이루며 남쪽은 바
다이고 북쪽은 제주시 구
좌읍과 조천읍이다.



표선면 지역에는 오래전 선
사시대 사람들이 거주했던 삶
의 흔적을 찾아 볼수 있다.¹⁾

그중에는 성읍리 유물 산포지가 무려 3개소가 확인되었으며 표선리 안가름 일
대에서 돌도끼 1점과 고분쟁이 동산에서는 광지리 토기편을 여러점 발견하였다.
이는 신석기시대 유적으로 BC3000년 ~ BC1000년 어간의 유적들이다.

이러한 선사시대(先史時代 AD1년이전)나 원사시대(原史時代 AD1년 ~ AD300
년)를 지나 문헌상으로 표선면 지역이 등장하는 것은 고려조에 들어 와서 이다.

1300년(충렬왕 26)에 제주목을 중심으로 하고 전지역을 동·서도현(東·西道縣)
으로 나누어 현(縣)을 설치하였다. 그 동도현에는 신촌(新村), 함덕(咸德), 김녕
(金寧), 토산(兎山), 호아(狐兒 : 일명 狐村)현을 설치했으니 이는 제주목이 속현
이었고 그중 토산현이 오늘날 표선면 지역이었다.

그 후 고려시대가 지나고 조선이 개국 되었다.

1416년(태종 16) 5월에 도안무사(都按撫使)오식(吳湜)과 전판관(前判官)인 장합
(張合)이 조정에 아뢰어 제주목(濟州牧)이 관장하던 산남의 200리 땅을 양분하고
정의현(旌義縣)과 대정현(大靜縣)을 설치하였다. 그와 더불어 정의현에는 토산현

1) 남제주군지 제1권 P.445~447. 남제주군 2006
표선리 향토지 P.33 표선리 원로회 1996

(兎山縣), 호아현(狐兒縣), 홍로현(烘爐縣)을 예속시켰으니 표선면 지역은 정의현 관할이었다. 원래 정의현 치소는 홍로(烘爐)땅에 두었으나 홍로는 풍수설에 입각하여 지형이 화로 모양이므로 불리하다고 하였다. 그래서 수산평(水山坪 : 성산읍 고성리)으로 옮겼다.

그러나 막상 수산평으로 옮겨갔으나 대정현과 거리가 무려 100리나 떨어져 있고 우도가 지척간에 있어 왜구내침이 우려 되었다. 그래서 1423년(세종 5) 읍성을 진사리(晉舍里 : 현 성읍리)로 이전 하였다.

1789년(정조 13) 호구총수에 의하면 표선면 지역은 토산면(兎山面)이 있었다. 그 후 18세기말에 정의현이 면을 개편할 때 표선면은 현의 중앙에 놓여 있으므로 중면으로 명명하였다.

따라서 표선면과 마을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²⁾

○ 1789년(정조 13)호구 총수

兎山面 : 表善里, 細花里, 兎山里, 加時岳里, 安坐岳里

○ 18세기말 제주읍지의 삼읍 방리조

中面 : 表善里, 細花里, 兎山里, 加時岳里, 安坐岳里. 현 남원을 관내인 水望里, 東衣貴里, 西衣貴里, 保閑里, 火等里, 又尾里, 狐村里

○ 1872년(고종 9) 제주삼읍 전도

東中面 : 表善里, 細花里, 加時里, 安坐里, 兎山里

○ 1899년(광무 3) 정의군읍지

東中面 : 左善里, 表善里, 東細花里, 西細花里, 東加時岳里, 西加時岳里, 安坐岳里, 兎山里

○ 1904년(광무 8) 제주목의 삼군호구 가간총책

東中面 : 左善里, 表善里, 細花里, 東加里, 加時里, 安坐里, 兎山里

○ 1914년 행정구역 폐합때의 변천

東中面 : 城邑里, 下川里, 加時里, 細花里, 兎山里, 表善里. 이 마을 명칭은 오늘의 법정리와 일치한다.

2) 오창명 제주도 마을이름의 종합적 연구 I P.61~83.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7

19세기 중후반에 성읍리(城邑里)와 궁산리(弓山里)2개 마을이 있었으나 19세기 말에 성읍리로 병합 되었다. 또한 성읍리는 하천리와 더불어 1914년 행정구역 폐합때 정의군 좌면에서 동중면 관할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표선면 지역은 정의현 읍성이 소재한 중심 고장이 되었다.

한편 중면이 된 후 표선면의 연혁을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 19세기 중반에 중면 토산리(兎山里)에 속해있던 온천리(溫川里)가 분리 되었다.
- 1906년(광무 10) 9월 21일 동중면 풍헌을 동중면장으로 개칭하였고, 약정(約正)·직월(直月)을 폐지하고 영수원(領收員)·서기(書記)를 두었다.
- 1910년 10월 공포된 면에 관한 규정에 따라 면장을 판임관대우 국가관리로 임용하였고, 그 사무소를 성읍리 809-1번지에 개설하였다.
- 1914년 3월 1일 정의·대정 양군이 제주군에 통합되어 전라남도 제주군 서중면이 되었다.
- 1914년 행정구역 폐합때 동중면의 안좌리(安坐里 : 가시리)와 토산리 일부를 서중면 온천리에 통합하고 안좌리 일부가 수망리에 각각 병합되었다. 그리고 좌면의 성읍리와 하천리를 동중면으로 이관하였다.
- 1915년 5월 1일 전라남도 제주도(濟州島) 동중면이 되었으며
- 1912~1918년까지 해안변을 따라 일주도로 개설로 행정·경제·교육의 중심 기능은 일주도로변으로 점차 옮겨졌다.
- 1935년 면사무소를 표선리 596-1번지로 이전하였다.
- 1935년 4월 1일 동중면을 표선면으로 개칭하였으며
- 1946년 8월 1일 도제(道制)실시에 따라 제주도 남제주군 표선면이 되었다.
-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및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행정시) 표선면이 되었다.
- 2009년 11월 30일 현재 표선면의 면적은 135.14km²이며 인구는 10,875명이다. 지역내 법정리는 6개이고 행정리는 10개이며 자연마을은 30개이다.

현재 표선면의 법정리와 행정리는 다음과 같다.

법정리	행정리
표선리	표선리
하천리	하천리
성읍리	성읍1리, 성읍2리
가시리	가시리
세화리	세화1리, 세화2리, 세화3리
토산리	토산1리, 토산2리

1. 표선리의 설촌유래

지금까지 표선리에 대한 최초의 설촌은 약 60년 전 고려 말 충열왕 무렵에 지금의 <웃말개미>에 설촌하고, 마을 이름을 燭旨리라 했다는 설이 있다. 웃말개미는 표선리 2821번지 일대를 말하는데 이 부근에서는 지금도 담굽에 대나무들이 자라고 일부 밭에서는 조개껍질이나 사금파리들도 나온다.



웃말개미란 그 어원부터가 위에 있는 마을이란 뜻이고, 개미란 개마, 즉 고원(높은언덕)이란 뜻으로 해석되어 여기에 오래 전에 마을이 있었으리란 추측을 하기는 어렵지 않다.

도내 한 일간지의 보도에 따르면(96년 1월 24일자) “표선면 표선리 마을 안에서 2천년 전에서 1천 7백년 전 사이에 쓰였던 돌도끼와 무문토기 조각들이 발견돼 당시에 이 지역에 사람이 살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하였다.

또 이 기사는 ‘표선면 사무소 서쪽 100m지점(속칭 안가름) 현순화 할머니(70)의 과수원에서 발견된 돌도끼는 잘 다듬어진 것이었으며, 무문토기편은 황갈색의 점토에 가는 모래가 섞인 광지1식 토기의 조각으로 기원후 300년 까지는 도내 주민들이 사용했던 것들’이라 부연하고 있다

이같은 무문토기는 과거 천미천을 끼고 이 마을과 가까운 성산읍 온평리 혼인지의 동굴 속에서도 발견된 바 있는데, 이번에 표선리에서도 찾아내어진 것이다.

이에 대해 제주대 박물관의 강창화 연구원은 “동굴유적에서 무문토기가 발견된 것은 일시적 거주 흔적으로 볼 수 있지만 밭에서 출토됐다는 것은 당시 그곳에서 집을 짓고 살았다는 추정을 할 수 있게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안가름>이란

밭은 아직도 옛날의 주거형태를 엿볼 수 있어 발굴조사의 필요성이 있는 장소이다.

안가름 뿐 아니라 표선면사무소 정문에서 길을 건너 동편의 <뒷가름>과수원에 서도 조선시대의 자기 파편들이 지금도 무수히 나오고 있다.

전해오는 바에 따르면 안가름, 뒷가름이 마을의 중심지가 될 무렵 속칭 <상뒤동산>을 경계로 그 동쪽을 永南里, 서쪽을 左善里라 하였는데 경민장 1인이 치리하였으나 두 마을간에 수시로 갈등이 빚어져 오다가 한일합방과 동시에 표선리로 통합되어 면소재지가 되었다고 한다. 한일합방 당시 경민장은 高奉伯이었는데 그는 연임하여 1년동안 리장을 지내기도 했다.³⁾

표선리의 옛 이름은 ‘폐선므르, 표선므르’ 또는 ‘폐선이므르’인데, 이는 한자 차용 표기로 쓰였다.

『탐라도』와 『탐라순력도』(「한라장축」) 등에는 ‘폐선므르므을 [票立村]’, ‘탐라지도」에는 ‘폐선므르므을 [票先村]’, 「제주삼읍도총지도」에는 ‘폐선므르므을 [票先旨村]’, 『호구총수』(정의, 토산면)와 「제주삼읍전도」, 「정의군지도」 등에는 ‘폐선므을 [表善里]’, 『제주읍지』(정의현지, 방리, 중면)에는 ‘폐선므르므을 [表先里]’, 『정의읍지』와 『제주군읍지』(「제주지도」) 등에는 ‘좌폐선므을 [左善里], 폐선므을 [表善里], 일제강점기 5만분의 1 지도에는 ‘폐선이므을 [表善里]’ 등으로 표기하였다.

민간에서는 ‘폐선이> 표선이’라고 한다.

票立村(표립촌)과 票先村(표선촌), 表善里·表先里(표선리) 등은 ‘폐선므을’의 한자 차용 표기로, ‘폐선므르므을’의 ‘므르’ [旨] 가 표기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票先旨村(표선지촌)은 ‘폐선므르므을’의 한자차용표기이다.

18세기 후반부터 표선리(表善里)로 표기되었고, 19세기 후반에 한때 좌선리(左善里)와 표선리(表善里)로 분리되었다.

좌선리는 20세기 초반에 영남리(永南里)로 바뀌었다.

그러다가 1914년 행정구역 폐합 때 정의군 동중면 영남리(永南里)와 표선리(表善里), 그리고 좌면 하천리(下川里)의 일부를 통합하여 제주군 동중면 표선리(表

3) 제주의 마을시리즈, 반석출판사, 2002, p18~24.

善里)라 하였다.

표선리 중심가에 상가가 들어서기 시작한 것도 1914년 일주도로가 뚫리고 1917년 표선리에서 성읍장터로 길이 연결될 무렵이다.

1925년에는 주재소가 지금의 표선면사무소 앞 노인정 자리로 옮겨오고 1934년에는 면사무소까지 지금의 제주은행 표선지점 자리로 옮겨왔다. 그 후 1937년에는 당시 공립정의보통학교가 현재의 표선초등학교 자리로 옮겨 왔다.

1915년께부터 표선리는 새로운 인구의 유입과 당개포구를 근거지로 한 어장의 형성 등으로 차츰 상가가 들어서기 시작했으며 1917년에는 현재의 네거리 일대에서 각 2일과 7일에 표선 오일장이 서기 시작했다.

한편 이 무렵 지금의 신협 동쪽 50m 거리에 있던 송남명씨의 남명식당은 표선 돼지고기 맛을 전도에 알린 대표적인 식당이었다.

표선리 본동의 서쪽 바닷가에 한참 떨어져 있는 한지동은 지금으로부터 250년 전에 朴春好씨가 지금의 장소(가마리 동쪽 경계)에 입주하면서 설촌되었고 지금은 넉치 등 양식어업의 주요 장소가 되어있다.

한편 堂浦는 조선시대부터의 포구이다. 한일합방 이후 일본의 전복채취선의 근거지가 되고 일본을 왕래하는 여객선 출입이 빈번해지면서 취락이 형성되었는데 지금도 1일 30~50척 어선이 드나드는 좋은 포구이며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횃집 군락도 형성되어 있다.

2005년 12월 현재 표선리는 동상동, 중하동, 서상동, 서하동, 당포동, 한지동 등 6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동상동(東上洞)은 동동네 위쪽에 있는 마을이라는 데서 연유하였다.

중상동(中上洞)은 중간 위쪽에 있는 동네라는 데서 연유하였다.

서상동(西上洞)은 서동네 위쪽에 있는 동네라는 데서 연유하였다.

서하동(西下洞)은 서동네 아래쪽에 있는 동네라는 데서 연유하였다.

당포동(堂浦洞)은 포구 가까이에 있는 ‘당개’라는 당이 있고, 그 당이 있는 포구 동네라는 데서 유래하였다.

한지동(漢池洞)은 ‘한못’ 일대의 동네로, 서하동 서쪽에 있다. ‘매오름’ 서남쪽에 있는 자연마을이다.

2. 가시리의 설촌유래

가시리는 가시오름(오늘날 지도에는 가세오름으로 표기됨) 북쪽, 설오름 남쪽, 갑선이오름 서쪽에 형성되어 있는 중산간 마을이다.

마을 동쪽으로 가마천(加麻川), 마을 서쪽으로 안좌천(安坐川)이 흐른다. 가시리는 700여 년 전에 ‘안좌



름’ ‘와게우영’ 일대에 변씨가 들어오고, 600여 년 전에 지금의 가시리에 한씨가, 450여 년 전에 군위 오씨가 들어와 살면서 마을이 커졌다고 한다.

그 후 순흥 안씨, 신천 강씨 등이 들어왔다. 가시리의 옛 이름은 ‘가시오름마을’ 또는 ‘가스름’이다. ‘가시오름’ 북쪽에 형성된 마을이라는 뜻이다.

가시리 일대에서 확인되는 첫 마을은 17세기 말 「탐라도」에 보이는 橡岳村(상악촌:남오름마을)과 安坐村(안좌촌)이다.

그 후 18세기 중반의 「제주삼읍도총지도」에서 橡岳村(상악촌)과 安坐岳村(안좌악촌: 안좌오름마을)이 확인되고, 18세기 말의 『호구총수』(정의, 토산면)와 『제주읍지』(정의현지, 방리, 중면)에서 加時岳里(가시악리: 가시오름마을)와 安坐岳里(안좌악리: 안좌오름마을)를 확인할 수 있다.

상악촌은 지금 민간에서 확인하기 어려운데, ‘남오름마을’의 한자차용표기로 보이고, 지금 가시리의 전신으로 보인다.

상악촌은 18세기 후반에 가시악리로 표기되고, 19세기부터 加時里(가시리)로 표기되었다.

19세기 말에는 가시리가 둘로 나뉘어 동가시악리(동가시오름마을), 서가시악리(서가시오름마을)라 하였다.

전자를 東加時里(동가시리: 동가시오름마을) > 東加里(동가리)라 하고, 西加時里(서가시리: 서가시리마을) > 西加里(서가리)라 하였다.

서가시리는 20세기 초반에 가시리라 하고, 1905년 이후에 동가시리를 통합하여 가시리라 하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

安坐村(안좌촌)은 安坐岳(안좌악: 屏花岳이라고도 함) 아래에 형성되었던 마을을 이른다. 安坐岳村(안좌악촌: 안좌오름마을)과 安坐岳里(안좌악리: 안좌오름마을)로 표기되었다가 18세기에는 安坐里(안좌리: 안좌마을)로 표기되었다.

安佐岳, 安坐岳은 ‘안좌오름’의 한자차용표기이다.

민간에서는 ‘안좌름, 안좌오름’이라고 한다.

安佐, 安坐는 ‘안좌’의 음가자 결합 표기이다. 그 뜻은 확실하지 않다.

동사 어간 ‘앉-’에 연결어미 ‘-아’ 또는 관형사형 어미가 붙은 형태가 아닌가 한다. 곧 ‘앉은오름’의 뜻이 아닌가 한다. ‘안좌오름’ 주변에 형성된 마을을 ‘안좌오름마을’이라 하고 하고 한자로 安坐岳村, 安坐岳里 또는 岳을 생략하여 安坐里라 하였다.

20세기 초가지도 독립된 마을이었으나 일제강점기인 1914년부터 일부는 가시리에, 일부는 수망리에, 일부는 신흥리에 병합되면서 안좌리라는 마을 이름이 사라졌다.

오늘날도 ‘안좌동’은 가시리의 한 자연마을로 남아있다.

17세기 말 「탐라도」에 오름 이름은 屏花岳(병화악), 마을 이름은 安坐村(안좌촌)으로 표기하고 18세기 「삼읍도총지도」에 오름 이름은 屏花岳(병화악: 병꽃오름), 마을 이름은 安坐岳村(안좌악촌: 안좌오름마을)으로 표기한 것으로 보아, 이 당시부터 오름 이름과 마을 이름을 다르게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加時岳(가시악)은 ‘가시오름’의 한자차용표기, 可沙岳, 加沙岳은 ‘가사오름, 가세오름’의 한자차용표기이다. 민간에서는 ‘가시오름, 가세오름, 가스름’이라고 한다.

오름 형세가 ‘ㄱ세’(가위의 제주어)와 같다는데서 가세오름이라 하였다고 한다.

그렇다면 ‘加時’는 ‘ㄹ세’의 변음 ‘ㄹ시’를 반영한 것이고, 可沙, 加沙는 ‘ㄹ세’ 정도를 반영한 음성형으로 보인다.

그런데 橡岳村(상악촌)으로 표기한 것으로 보아 加時岳(가시악)의 加時(가시), 可沙岳, 加沙岳(가사악)의 可沙, 加沙(가사)가 ‘ㄹ세’를 표기한 것이라 단정하기도 어렵다.

‘가시오름’주변에 형성된 마을을 ‘가시오름마을’이라 하였다. 그러나 실제 마을은 ‘가시오름’과 거리가 있다.

오히려 ‘토산1리’와 ‘세화1리’가 ‘가시오름’가까이에 있다. 표기에 있어 岳(악)을 생략하여 ‘가시리’라고도 한다.

가시리는 19세기 말에 동가시악리와 서가시악리 등 2개의 마을로 나뉘었다. 이들은 각각 岳을 생략하여 표기하기도 하였다.

20세기 초에 동가시악리는 ‘동가리’라 하고, 서가시악리는 ‘가시리’라 하였다. 동가리와 서가리는 1905년 이후에 다시 가시리로 병합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폐합때 동중면 가시리와 안좌리 일부를 병합하여 가시리라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17세기부터 18세기까지 甲先岳(갑선악:갑선이오름) 바로 서쪽에 橡岳村(상악촌)으로 표기한 마을이 있다.

橡岳(상악)도 ‘가시오름’의 한자 차용표기이고, 橡岳村(상악촌)도 ‘가시오름마을’의 한자차용표기이다.

곧 가시오름마을이 주로 加時岳村(가시악촌)이나 加時岳里(가시악리)로 표기되었는데, 橡岳村(상악촌)으로도 표기한 것이다.

橡의 훈은 ‘상실이’ 상수리지만 이에 대응하는 제주어는 ‘츠남, 츠낭’ 또는 ‘가시낭’이다. 이 중 ‘가시낭’에 대응하는 훈독자 표기가 橡인 것이다.

곧 ‘가시낭’이 많은 오름이라는데서 橡岳(상악)이라 하고, 그 ‘오름’ 가까이에 형성된 마을이라는데서 橡岳村(상악촌)이라 한 것이다.

18세기 중후반부터 加時岳里(가시악리)로 표기하면서 橡岳村(상악촌)이라는 마을 이름은 쓰이지 않게 되었다.⁴⁾

2005년 12월 현재 가시리는 중동, 안좌동, 두리동, 폭남동, 동상동, 역지동 등 6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중동은 가시리 중심마을이다. 안좌동은 ‘안좌오름’(병칭 ‘벵곶오름’) 앞에 형성되어 있는 자연마을을 이른다.

옛 ‘안좌오름마을’ 일대에 형성된 동네다. 두리동은 ‘두이동’이라고도 하는데, 마을 서쪽에 있는 ‘두리물’ 일대에 형성되어 있는 자연마을이다.

동상동은 웃동네 동쪽 동네를 이른다. 폭남동은 중동 남쪽 ‘폭남’(팽나무) 일대에 형성되어 있는 자연마을이다.

역지동은 가시리 동남쪽 ‘역마르’ 일대에 형성되어 있는 자연마을로, ‘영지동’이라고도 한다.

역지동은 일제강점기 때 ‘靈旨洞(영지동: 영마르동네)’으로 표기되었다.

4) 제주도 마을이름의 종합적 연구Ⅱ, 오창명,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7, p754~757

3. 성읍1리의 설촌유래

성읍리는 정의현성이 있었던 중심마을로, 영주산 남쪽, 남산봉 서쪽에 형성되어 있는 마을을 이른다.

성읍리는 적어도 700~800여 년 전부터 마을이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성읍리 일대의 유물산포지에서 확인되는 신석기시대의 적갈색토기 등을 고려하면 그 이전부터 마을이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가 조선 초에 성산읍 고성리에 있던 정의현성을 옮겨오면서 마을이 커졌다고 할 수 있다.



성읍리의 옛 이름은 ‘진사마을(진사리)’이었는데, 정의현성이 들어서면서 城邑(성읍)이라 하였다.

『태종실록』(17년 5월 갑진)에서 ‘眞舍(진사)’, 『세종실록』(18년 4월 임술)에서 ‘찡솨리(진사리: 진사마을)’을 확인할 수 있다.

『탐라도』에서 ‘旌義縣(정의현), 邑外村(읍외촌), 弓山村(궁산촌: 활미마을)’, 『탐라순력도』에서 ‘旌義(정의), 邑外村(읍외촌: 읍밖마을), 弓山村(궁산촌: 활미마을)’을 확인할 수 있다.

眞舍里·찡솨리(진사리)는 ‘진사마을’의 한자차용표기이다. 眞舍·찡솨(진사)는 ‘진사’의 음가자 결합 표기인데, ‘진사’의 뜻은 확실하지 않다. 정의현성이 옮겨오기 전 이름이다.

정의현은 정의현성을 일컫고, 읍외촌은 ‘읍밖마을’의 차자 표기로 현성 밖에 형성된 마을을 이른다.

이 읍외촌은 18세기 중후반부터 城邑里(성읍리)라 하였다.

성읍은 조선시대 때 州(주)·府(부)·郡(군)·縣(현) 등을 두루 이르던 말인데, 정의현성이 있는 마을이라는 데서 붙인 것이다. 지금의 성읍1리를 이른다.

정의현성 북서쪽에 형성된 마을을 ‘활미마을’이라 하고, 한자차용표기로는 ‘弓山村(궁산촌: 활미마을) 또는 弓山里(궁산리: 활마을)’라 했다. 지금의 성읍2리를 이른다.

1914년 정의군 좌면 성읍리(城邑里) 일부를 제주군 동중면 성읍리라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50년대 초반부터 ‘정잇골’ 또는 ‘성읍’ 일대를 성읍1리라 하고, 옛 ‘활미마을’ 일대를 성읍2리라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2005년 12월 현재 성읍1리는 오늘날은 서상동, 서하동, 동상동, 동하동 등 4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은 마을을 크게 동·서로 나누고, 다시 위와 아래로 나눈 것이다.

제주도 남제주군 표선면 성읍1리를 국가지정 민속마을로 지정한 것은 약 500년 동안(1423~1914)의 도읍지이면서 오밀조밀한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가 이 마을 안에 밀집되었기 때문이다.

해안에서 8km쯤 올라간 아늑한 산촌인 성읍민속마을은 정부지정 민속마을로서 민속학적인 색다른 가치와 관광대상지로서 유별난 성격을 지닌다.

1980년 5월 6일 지방민속자료 제5호로 지정 보호되다가 1984년 6월 7일 국가지정 중요민속자료 제188호로 지정되었다.

제주도는 방어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1416년(조선조 태종 16)에서 1914년까지 약 500년 동안 행정구역을 삼분(三分)하였다. 한라산 북쪽이 제주목(濟州牧)이었으며 한라산 남쪽은 양분되어 서쪽이 대정현(大靜縣), 동쪽이 정의현(旌義縣)이었다. 성읍민속마을은 오랜 세월 정의현의 도읍지였다.

제주도의 전형적인 산간마을이면서 약 500년 동안의 도읍지였다는 점이 접목됨

으로써 유형·무형의 문화재를 오밀조밀 간직하고 있다.

해안마을 표선리에서 8km쯤 올라간 곳에 아담하게 자리잡은 성읍민속마을은 평퍼짐한 대평원 속에 곡선미를 뽐내는 오름(峰)들이 마을을 뱅 둘러가면서 불쑥 불쑥 솟아 사방으로 병풍처럼 둘러쳤다.

성읍민속마을 뒤에는 영주산(瀛洲山, 325m)이 의연하고, 백야기오름·본지오름·무찌오름·장자오름·갑서나오름·설오름·개오름·모구리오름·독자봉·가시오름·돌리미·문서기오름·궁대오름·좌버미오름 등 크고작은 오름들이 수위 병들처럼 솟았다.

일망무제로 탁 트인 성읍민속마을의 들판에 서서 사방을 내다보면 대자연의 향연에 압도당하면서 외경을 느끼게 된다.

이 마을 한복판에는 이른바 '천년수(千年樹)'로 이름난 느티나무가 원(圓)의 중심처럼 의젓하다.

그 주변의 험철한 팽나무들과 정의현청(旌義縣廳)이었던 일관헌(日觀軒)이 우리의 눈을 끈다(이 느티나무와 팽나무는 천연기념물 제161호로, 일관헌은 제주도 유형문화재 제7호로 각각 지정, 보호되고 있다).

성읍민속마을 주변에는 성이 쌓였었고 이제도 그 성터가 일부 남아있는데, 당국에 서는 구 관서(舊官署)들과 더불어 연차계획에 따라 정확한 복원을 서두르고 있다.

정의향교(旌義鄉校)는 제주향교(濟州鄉校), 대정향교(大靜鄉校)와 더불어 그 보존상태가 좋다(제주도 지정 유형문화재 제5호).

정의향교는 현청소재지가 고성리(古城里)로부터 성읍리로 옮겨지던 1423년(세종 5)에 세워진 것이다.

성읍민속마을에는 '백수머리' 또는 '무성목'이라 불리는 돌하르방이 열 둘 있다(제주도 지정 민속자료 제2호).

제주도내에 돌하르방이 도합 몇이었는지, 언제, 누구에 의해서 제작된 것인지, 어찌하여 제주목·대정현의 것과 정의현의 것은 각각 그 형상이나 명칭이 다른 것인지, 한반도에 산재된 장승(백수)들이나 외국의 이런저런 석상들과 어떻게 그

맥락이 닿는 것인지, 슬한 과제가 쌓여 있다. 어쨌든 이곳에 본래부터 12기가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면, 동문·서문·남문에 각기 4기씩 세워졌었다고 추찰할 수 있으며 그렇다면 이곳의 돌하르방은 거의 원위치에 놓여있는 셈이다.

무속신앙처도 20개소 산재됐었다. 이 가운데 '안할망당' '광주부인당' '일케당' '개당' 등은 아직도 남아있다.

성읍민속마을 주민들의 신수와 강년을 관장한다는 '안할망당'의 성격은 '안칠성' 계열이라 볼 수 있다.

부인병이나 모유등을 관장한다는 '광주부인당'의 유래담에는 현감 부인의 치병을 간곡히 기원하며 순사(殉死)했다는, 현감부인의 시녀였던 광주부인의 애뜻하고 가특한 이야기가 감돈다.

이미 사라졌지만, 마소의 번식과 질병을 관장한다는 '쉐당'이 있었음은 성읍 주민의 재래적인 사람살이가 주농부축(主農副畜)이었음을 입증해 준다.

이 마을에서는 유교식 마을제인 포제(祭)가 면면이 치러진다.

그 제향 대상신 가운데 '목동신지위(牧童神之位)'가 끼어있음도 축산에 상당한 비중을 두었었음을 증명한다. 또한 이 마을에서는 해마다 백중날에 축산의 번성을 기원하는 '백중코사'도 성행했었다.

유다른 가옥구조는 귀중한 문화유산임과 동시에 이 방면의 학술적 자료로 높은 가치를 지닌다.

이 마을의 성씨 분포는 康·金·李·洪·高·宋의 순서인데 비동정(非同旌)마을이라고 단정할 수 있다.

7대 이상 이어지는 성씨가 드물다는 사실도 흥미롭다. 이 마을은 지난날 행정요지였으므로 관헌과 주민들의 전·출입이 빈번했었다는 근거가 될 듯 싶다.

성읍민속마을에서는 예로부터 여느 마을보다도 걸궁이 성행해서 끈질기게 오늘날까지 이어진다.

나이든 제보자들의 말에 따르면, 걸궁은 마을의 주민들이 자생적으로 시작했다기보다 한본토에서 흘러들어와 살았던 사당패들이 널리 전파했다 한다.

이러한 현상은 민요 등 구비전승 및 사람살이의 이모저모에서도 발견되는데

500년 동안의 도읍지였기 때문에 이룩된 일종의 문화유입이라고 여겨진다.

성읍민속마을에는 희귀하고도 학술적 값어치가 높은 민요가 많이 전승되고 있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한국구비문학문계(韓國口碑文學文系) 9-3》과 문화방송의 《한국민요대전》 통해서도 심층적으로 조사된 바 있다.

1989년 12월 1일에는 임동권·이소라·김영돈 위원등의 조사에 준거해서 <제주 민요 >가 중요무형문화재 제95호로 지정되기에 이르렀는데, 예능보유자는 이 마을의 조을선(趙乙善)이고, 예능보유자후보 역시 이 마을의 이선옥(李善玉)이다.

성읍민속마을은 제주도의 전형적인 산촌(山村)임과 더불어 약 500년 동안의 도읍지였다는 이중성격을 지니므로, 이곳의 민요 역시 이 양면성을 동시에 지니면서 전승된다.

제주도의 어느 산촌에서든 전승되는 노동요·의식요 등이 잘 전해지는 한편, 오랜 세월 도읍지였기 때문에 기녀 등을 매체로 하여 전해지는 창민요(唱民謠, 통속민요)가 전승되기도 한다.

다른 마을에 비하여 민요가 썩 빼어나고 가멸진 까닭은 이 고을이 지나는 이중적 성격에 기인한다.

따라서 성읍민속마을에서는 도내 다른 마을에서 구전되어 내려오는 제주 고유의 민요들이 전해지는 외에 <용천검 >·<관덕정앞 >·<신목사타령 >·<중타령 >·<질군악 >·<오강산타령 >·<사랑가 >·<жат은사랑가 >·<계화타령 >(김계화)·<동풍가 >등 특이한 민요들이 이제도 잘 불린다. 이런 창민요는 다른 마을에서는 들어볼 수 없거나, 드물게 전승되는 노래들이다.

민속음악을 전공하는 이들의 견해에 따르면, 한본토의 산타령에 가락으로 보이는 것이 흔할뿐더러, 한본토에서는 이미 그 원형이 변질되어 버린 경서도(京西道) 민요의 원모습을 고스란히 전해주는 것이 있다는 점에서 그 값어치를 높이 평가한다.

더욱이나 노동요 가운데에서도 밭 매면서 부르는 구성진 가락의 <아웨기 >·<홍애기 >등의 특이한 민요는 다른 몇몇 마을에서도 전승되기는 하지만 이 성읍민속 마을에서 더욱 멋있게 불린다.

또한 연자매, 곧'말방애'를 쪼그면서 도내의 대부분의 마을에서는 단조로운 요사와 가락으로 노래함에 비하여 이 마을에서는 조을선·이선옥씨가 부르는 가락을 보더라도 제대로 틀이 잡혔다.

어쨌든 성읍민속마을의 창민요는 한반토에서 흘러들어와서 본디의 가락과 요사가 일부 변용된 것인데 그 교류현상이나 전승변이 등을 살펴는 데도 소중한 값어치를 지닌다.

성읍민속마을의 가옥구조는 도읍지로서의 면모가 아직도 남겨진 듯, '올레'가 시원스럽고, 노천변소가 예전부터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중요민속자료 제68호인 조일훈 가옥 울타리 안 대문 가까이에 '말방애'(연자매)가 설치된 일도 특이하다. 개인소유로 '말방애'가 설치되는 경우는 제주도내에서도 드물었기 때문이다.

성읍민속마을의 통혼권(通婚圈)은 마을 안에 치중되었으며, 다른 마을과 통혼할 경우에는 해안마을보다는 중산간 마을을 선호하는 편이다.

그리고 이 마을의 가족구조를 보면 2인 가족세대와 1인 가족세대가 비교적 많은바, 이러한 현상이 이 마을이 오랜 세월 도읍지였다는 점과 어떤 상관성을 지니는지는 미지수다.

성읍민속마을 주민들은 조혼하는 경향이 짙었었다. 1973년 필자의 현지조사에 따르건대, 이곳 여인 들의 초혼연령은 대개 스무 살이었는데, 도읍지였다는 분위기의 유풍에도 그 원인의 일부가 있지 않나 생각되나 분명치 않다.

다른 마을사람들의 일상적 삶의 태도에 비하더라도 쾌활하고 유희적 기질이 엿보인다는 점은 "성읍민속마을 특유의 의식구조"를 한 주제로 삼아서 연구해 볼만한 값어치가 있을 줄 안다.⁵⁾

5) 제주특별자치도 성읍1리 홈페이지 <http://jejuvill.net/jejutown/domain-root/4503/>

4. 성읍2리의 설촌유래

성읍2리는 영주산 북쪽 으로부터 시작하여 개오 림 남쪽에 형성된 중산간 마을로 마을 동쪽에서 확인되는 신석기시대 유물 산포지를 감안할 때 일찍 부터 사람이 거주했던 것 으로 추정하고 있다.



성읍2리는 고려시대부터 국 마를 기르던 목장이었고 영주산 뒤에 있는 언덕인 활미(弓山)가름 일대에 사람이 들어와 살면서 궁산촌(弓山村)이라 불렀다.

성읍2리는 18세기에 들어와서 정의현 좌면 궁산리로 표기되어 독립된 마을이었으나 19세기에 들어와서는 성읍리에 속했던 것으로 보인다.⁶⁾

성읍2리의 옛 이름은 ‘활미’ 또는 ‘활미가름’이다. 성읍2리는 『탐라도(17세기 말)』와 『탐라순력도(1703)』 등에 ‘弓山村(궁산촌:활미마을), 弓山(궁산:활미)’, 『탐라지도(1709)』와 『제주삼읍도총지도(18세기 중반)』 등에 ‘弓山村(궁산촌:활미마을)’, 『증보탐라지』(정의현, 면촌)과 『호구총수(1789)』 등에 ‘弓山里(궁산리:활미마을)’, 『제주군읍지(1899)』, 『제주지도』에 ‘弓山里(궁산리:활미마을)’, 일제강점기 1:50,000지형도에 九龍洞(구룡동:구룡곶동네), 遮南洞(차남동:차남곶동네), 安保洞(안보동:안보곶동네)등으로 표기하였다.

성읍2리의 옛 이름 ‘활미’, ‘활미가름, 활밧가름’에서 ‘활미’는 弓山(궁산)으로 표기하고, ‘활미가름’은 弓山村(궁산촌)으로 표기하였다.

17세기부터 18세기까지 弓山村(궁산촌)으로 표기하고, 18세기 말부터 弓山里(궁

6) 오창명, 제주도 마을이름 연구,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4, p.390~391.

산리)라 표기하였다. 弓山(궁산)은 ‘활미’의 한자차용표기, 弓山村(궁산촌)은 ‘활미마을’의 한자차용표기이다. 弓은 ‘활’의 음가자 표기이다.

山은 ‘뫼’의 제주어 ‘미, 메’의 훈독자 표기이다. 18세기 말까지도 독립된 행정마을이었으나 19세기에는 행정상 城邑里(성읍리)에 속하였다.

성읍 영주산 바로 서북쪽, ‘활미가름’북동쪽에 있는 언덕을 ‘활미(弓山)’라 하고, 이 활미 앞에 형성된 마을이라는데서 ‘활미가름’ 또는 ‘활미마을(弓山村)’이라 하였다.

‘활미’는 미낙에서 ‘활미’로 실현되기도 하는데 ‘활밧가름’ 뒤쪽에 활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 마루를 이른다.

일제강점기 ‘활미’ 서쪽 구렁팻 일대에 마을이 형성되어 이곳을 ‘구렁팻동네’라 하고 한자차용표기로 九龍洞(구룡동)이라 하였다.

구렁팻 북쪽에 遮南洞(차남동:츠남동네)이 있었다. ‘츠남’은 ‘상수리나무’의 제주어이다. ‘활미’동쪽 ‘안밭, 안보왓’, ‘안보동’일대에 마을이 있었는데 한자로 安保洞(안보동)이라 하였다.⁷⁾

1910년 8월 29일 한일합방이 되었고 1914년 행정구역 폐합시 정의군은 폐지되었고 1915년에는 제주도(濟州島) 동중면 성읍리가 되었다가 1935년 4월에는 동중면이 표선면으로 개칭되자 표선면 성읍리가 되었다.

1945년 8월 15일 조국이 광복되자 1946년 8월 1일 제주도 남제주군 표선면 성읍리가 되었다.

1948년 4.3사건때에는 그 해 말에 소개령에 따라 성읍1리나 해안마을에 흩어져 내려갔다가 1955년에 성읍2리는 구렁관(九龍洞) 부근에 올라와 재건하였으며 이 시점에 성읍리는 1리와 2리로 나누어진 듯 하다.

1967년 지역사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애월읍 유수암리에 양잠단지, 남원읍 하례2리에 양마단지, 그리고 성읍2리 안보동(安保洞)에는 축산단지를 건설하고 33세대를 입주시켰다.

현재 성읍2리는 구룡동(九龍洞), 안보동(安保洞) 등 2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졌다.

7) 오창명, 제주도 마을이름의 종합적 연구Ⅱ,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7, p752~753

5. 세화1리의 설촌유래

세화1리는 ‘가세오름’바로 동쪽, ‘매오름’ 서북쪽에 형성돼 있는 중산간 마을을 이른다. 1480년 정의현감을 보좌하고 있던 허영익이라는 별감이 관내를 순방하던 중 가스름(가시리)을 경유하여 가세오름을 돌아 속칭 ‘가매물’이라는 큰 냇가 좌편지역에 이르니 갑자기 사슴 한 마리가 앞다리로 땅을 긁고 있었다.



이를 수상히 여긴 허별감은 즉각 지관에게 명하여 자세히 살펴보게 한 즉, 지관이 고하되 이곳은 닭이 알을 품고 있는 형상을 하고 있어 자손이 번창하고 지맥이 흐르고 있어 좋은 택지가 된다고 하였다.

이 말을 들은 별감은 즉시 집으로 돌아와 전가족을 이끌고 이곳으로 이주하여 최초의 허씨촌이 되었으며 마을 이름을 약향리라 하였다가 나중에 돈내오름⁸⁾이라 하였다.

세화리(細花里)는 일찍부터 ‘ㄱ는꽃> ㄱ는꽃’이라 부르고 한자로 細花村(세화촌)으로 표기하였다. 한편 細花村(세화촌)은 敦內岳村(돈내약촌)으로도 표기하였다.

敦內岳村(돈내약촌)은 세화1리에 있었던 마을로 ‘돈내오름, 돈노름’일대에 있던 마을이다.

500여년 전 허씨가 ‘도노름’일대에 들어오고, 그 후 고씨, 강씨, 현씨, 김씨, 정씨 등이 들어오면서 마을이 커졌다고 한다.

세화리는 매오름 서남쪽 일대, 토산약(토산봉) 동쪽 일대에 형성되어 있는 마을

8) 남제주문화원, 남제주군의 문화유산, 일신옵셋인쇄사, 2006, p1035.

이다. 세화리의 옛 이름은 ‘ㄹ는꽃’이다.

이를 한자차용표기로 쓴 것이 細花村(세화촌)과 細花里(세화리)이다.

‘ㄹ는꽃’은 ‘가늘게 형성된 숲’이라는 뜻을 가진 고유어다. 이 일대에 마을이 형성되면서 마을 이름으로 굳어진 것이다. 세화촌은 17세기 말 지도인 「탐라도」에서 처음 확인할 수 있다.

세화리는 18세기 말의 『호구총수』(정의, 토산면)와 『제주읍지』(정의현지, 방리, 중면)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화촌과 세화리는 18세기 중반에 한때 敦內岳村(돈내약촌: 도내오름마을)으로 표기되었는데, 이는 세화리의 별칭인 ‘도노름’을 한자차용표기로 나타낸 것이다.

세화리는 19세기 후반에 두 개로 나뉘는데, 東細花里(동세화리: 동ㄹ는꽃마을)> 東細里(동세리)와 西細花里(서세화리: 서ㄹ는꽃마을)> 西細里(서세리)이다.

이 두 마을은 20세기 초반에 다시 세화리로 통합된다. 지금의 세화1리와 세화3리 일대를 이른다.

19세기 말에 加麻路浦(가마로포: 가마룻개) 일대에 마을이 형성되었는데, 그 마을을 可麻洞(가마동: 가마로동네) 또는 加麻洞(가마동)이라 했다. 지금의 세화2리를 이른다.

‘ㄹ는꽃마을’은 細花村(세화촌)으로 표기하고, ‘돈내오름마을’은 敦內岳村(돈내약촌)으로 표기하다가, 18세기 말부터 행정상 細花里(세화리)로만 표기하였다.

18세기 중후반까지도 細花里(세화리)로 표기하였는데 19세기 말에는 東細花里(동세화리)와 西細花里(서세화리)등 2개 마을로 나뉘었다가, 20세기 초반에 다시 細花里(세화리)로 병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1899년의 『정의읍지(1899)』(방리, 동중면)와 「정의지도」 등에서는 東細花里(동세화리:동ㄹ는꽃마을)와 西細花里(서세화리:서ㄹ는꽃마을) 등 2개의 마을을 확인할 수 있으나, 같은 해에 그려진 『제주군읍지(1899)』의 「제주지도」에서는 東細花里(동세화리:동ㄹ는꽃마을)와 西細花里(서세화리:서ㄹ는꽃마을), 可麻洞(가마동:가마로동네) 등 2개의 마을과 하나의 동네를 확인할 수 있다.

당시 ‘동세화리’는 보모숫내(오늘날 지도에서는 가마천으로 표기됨) 중류 동쪽에 형성된 마을로, 오늘날의 ‘세화1리’를 이른다.

‘서세화리’는 ‘보모숫내’ 중류 서쪽에 형성된 마을로, 오늘날의 ‘세화3리’를 이른다. ‘가마동’은 ‘생거릿개’(국토지리정보원 발행의 1:5,000 지형도에는 생걸포구로 표기됨) 일대에 형성된 동네로 오늘날의 세화2리를 이른다.

일제강점기 1:50,000 지형도에는 ‘細花里(세화리), 江河洞(강하동:강애왓마을), 可麻里(가마리:가마룻개마을)’등으로 표기하였는데, 당시 세화리는 지금 세화1리, 강하동은 세화3리, 가마리는 세화2리를 이른다.

이렇게 3개 동네로 나뉘었지만 행정상으로는 세화리에 병합되었다.

세화리는 1950년대 초부터 옛 ‘ㄱ눈곶’ 또는 ‘도노름’과 ‘강애왓’일대를 ‘세화1리’라 하고, 가마리(생거릿개 일대) 일대를 세화2리라 하였다.

그러다가 1988년부터 세화1리에 속하였던 ‘강애왓’(오늘날 강화동) 일대를 ‘세화3리’라 하여 분리하였다.

세화1리와 가시리 경계(가세오름 북동쪽)에는 ‘왕골’ 또는 ‘왕굴’, ‘왕굴므르’라는 들이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권38, 정의현, 산천)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왕골은 정의현 서쪽 10리에 있다. 둘레가 20리다.”

현재 세화1리는 서상동, 동상동, 동하동 등 3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다.⁹⁾

9) 오창명, 제주도 마을이름의 종합적 연구Ⅱ,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7, p758~761.

6. 세화2리의 설촌유래

세화2리는 매오름 서남 쪽으로부터 토산2리 어간에 형성된 해안마을이다.

세화2리는 150여년 전 속칭 밧마리(갯머리)일대에 채만봉씨가 점포를 개설하였고 그 후 군위오씨(軍威吳氏)가 표선에 들어와 가지천 하류 서쪽에 정주하면서 설



촌되기 시작하였다. 세화2리 옛 이름은 『남사록』에 소마로(所尔路:바다룻개)라 하였고 그 후에 加麻路浦(가마로포: 가마룻개), 가마동(加麻洞) 등으로 표기되다가 가마리로 굳어졌다.

처음에는 포구의 머리에 자리잡은 마을이라 하여 ‘갯머리’라 불리던 것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가마리’로 변형되었다고 한다.

이중의 『남사일록』을 보면, 지금 표선리 당캐를 거쳐 ‘所馬老浦西邊烟臺(소마로포해변연대)’를 지나고 ‘兎山浦(토산포)’로 갔다고 하였다.

곧 所馬老浦(소마로포) 서변에 所馬老浦(소마로포) 烟臺(연대)가 있다고 하였다. 오늘날 所馬老烟臺(소마로연대) 터는 표선리 한지동 동쪽 언덕, ‘츠남굴’아래쪽 언덕에 있기 때문에 所馬老浦(소마로포)는 이 연대 동쪽에 있어야 한다. 그러면 표선리 사조냉장주식회사 제주양식장 앞 바다 일대가 된다.

이 일대는 ‘감생이개, 귀영구석, 코생이통, 갯늪, 흰동산, 펠트레기목, 동두랭이’ 등의 지명이 있을 뿐이다.

이 포구는 『남사록(1601~1602)』(권3)에서 所尔老浦(소마로포:밧마룻개), 『남사일록(1679~1680)』과 『탐라지(17세기말)』 등에서 所馬老浦(소마로포:밧

믓갯개), 『탐라순력도(1703)』 (「한라장축」)와 「제주삼읍도총지도(18세기 중반)」, 「제주삼읍전도(1872)」 등에서 所馬浦(소마포:밧믓갯개), 「탐라지도(1709)」에 所馬路浦(소마로포:밧믓갯개)로 표기하였다.

한자 표기 所尔老浦(소마로포)와 所馬老浦(소마로포), 所馬路浦(소마로포) 등이 서로 대응되는 표기이므로, 所는 ‘소’나 ‘바’의 표기이고, 尔와 馬는 ‘마’의 음가자 표기, 老와 路는 ‘로’의 음가자 표기, 浦는 ‘개’의 훈독자 표기임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리고 所馬浦(소마포)는 셋째 음절을 표기에서 생략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所尔老浦(소마로포)와 所馬老浦(소마로포)로 표기하던 개가 1872년의 「제주삼읍전도」와 「정의군지도」에 加馬老浦(가마로포)로 표기하였다는 것이다. 加馬老浦(가마로포)는 ‘가마갯개’ 정도의 음성형을 반영한 표기이다.

지금 세화2리와 표선리 ‘한지동’ 경계 일대의 바다를 세화2리에서 ‘가마리개’라고 하는데, 이것과 대응하는 것이 加馬老浦(가마로포)가 된다. 그런데 이 지역은 ‘소마로연대’(바마로연대)터에서 서쪽이다.

「제주삼읍전도(1872)」(정의군 중면)와 「정의군지도(1899)」등에서 ‘가마리개’(생거리 포구 동쪽)일대를 加馬老浦(가마로포:가마갯개)로 표기하고, 이 일대에 형성된 동네를 ‘可麻洞(가마동:갓마로 동네)」（「제주지도」）으로 표기하였다.

『남제주군 고유지명』(1996:724)에서 “可麻里(가마리):포구 머리에 자리잡은 마을이라 하여 ‘갯머리’였던 것이 변형된 이름.”이라는 설명과 “가마리개: 세화2리 169번지 동남쪽 바닷가. 이 마을의 중심포구인데서 연유한 이름.”이라는 설명에서 可麻里(가마리)가 이전의 加馬老浦(가마로포)와 可麻洞(가마동)에서 이어지는 이름이라 할 수 있다.

결국 加馬老浦(가마로포:가마갯개) 일대에 형성된 동네를 『제주군읍지(1899)』(「제주지도」)에서는 可麻洞(가마동)으로 표기하고, 일제강점기 1:50,000지형도에는 加麻里(가마리)로 표기하였다. 이후 加麻里(가마리)라 표기하였다.

그러나 조선시대부터 이 당시까지 加麻里(가마리)는 행정상 細花里(세화리)에

속하였다.

세화2리 포구는 『조선지지자료(1910년경)』에 ‘生決浦(생결포), 성결이ㄴ |’로 표기한 것으로 보아, 일제강점기까지도 ‘성결이ㄴ |’ 또는 ‘성겨릿개’ 정도로 불렀는데, 요즘은 ‘생거리’로 부르고 있다. 오늘날 1:5,000 지형도에는 ‘생결포구’로 표기하였다.

세화리는 1950년대 초부터 옛 ‘ㄴ눈곶’ 또는 ‘도노름’과 ‘강애왓’일대를 ‘세화1리’라 하고, 가마리(생거리포구 일대) 일대를 세화2리라 하여 세화리에서 분리하였다.

현재 세화2리는 본동과 중동 등 2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마을에서는 상동과 하동, 서동 등으로 나눈다.

한편 「탐라지도(1709)」와 「제주삼읍도총지도(18세기 중반)」, 「제주삼읍전도(1872)」, 『해동지도』 등에서 ‘甫毛所川(보모숫내:보모숫내)’으로 표기한 내가 있는데 오늘날 加麻川(가마천:일부 지도에는 ‘가시천’으로 표기함)을 이른다.

18세기 말에 이르러 정의현 중면 세화리에 포함되었고 1915년에는 제주도(濟州島) 남제주군 표선면 세화리로 되었다.

그 후 세화1리와 2리가 분리되어 가마리는 세화2리라 칭하고 있다.¹⁰⁾

10) 오창명, 제주도 마을이름의 종합적 연구Ⅱ,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7, p762~764.

7. 세화3리의 설촌유래

세화3리는 토산봉 동쪽으로부터 가마천(加麻川, 加時川)주변에 형성된 중산간 마을이다. 1896년 성산읍 수산리에 살던 군위오씨가 이 마을 1590-1번지로 들어왔고 그 인근에 같은 시기에 동래정씨, 신천강씨가 이주해 와 설촌이 되었다.



그 후에도 군위오씨, 경주김씨, 김해김씨가 ‘동강왓’, ‘불미저’등에 입주하여 마을이 커지기 시작했다.¹¹⁾

세화3리의 옛 이름은 강애왓, 강하동(江河洞), 강화동(江華洞)등으로 불려왔다. 일제강점기 1:50,000 지형도에서 강하동(江河洞:강하왓)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는 ‘ㄱ는곳마을’과 ‘돈내오름마을’에 병합되어 細花里(세화리) 또는 細花村(세화촌), 敦內岳村(돈내악촌)이라 하였다.

18세기 중후반까지 細花里(세화리)라 하다가 19세기 말에 細花里(세화리)가 ‘東細花里(동세화리:동ㄱ는곳마을)’와 西細花里(서세화리)등 2개 마을로 나뉘었는데, 이 때 西細花里(서세화리)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0세기 초반에는 다시 細花里(세화리)로 병합하였다. 일제강점기에는 세화리의 한 동네로 강하왓동네라 하여 강하동(江河洞:강하왓동네)으로 표기하였다. ‘강하왓’은 사람에 따라 ‘강애왓’ 또는 ‘강왓’등으로 실현된다.

江河洞(강하동)은 제주 4·3 사건 뒤에는 江下洞(강하동)으로 쓰다가 1960년 이후 江華洞(강화동)으로 썼다고 한다.

한편 주민들은 大華洞(대화동)이라는 이름도 썼다고 한다. 1988년 이후 이 일대를 세화3리라 하여 세화 1리에서 분리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11) 오창명, 제주도 마을이름 연구, 제주대학교 출판부, p.396~397.

현재 세화3리는 강화동(江華洞) 1개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다.¹²⁾

8. 토산1리의 설촌유래

토산1리는 토산오름(兎山峯)북쪽 일대에 형성되어 있는 중산간 마을로 표선면의 가장 서쪽에 위치하고 서쪽은 ‘솔내(松川)’를 경계로 남원읍 신흥리와 접해있다. 이 곳 토산봉에는 중산간지대에 서는 보기 드물게도 생수가 솟아난다.



그래서 사람의 주거 역사는 오래 되었고 1,000여년 전에 제주 부씨가 이곳에 들어왔다. 그 후 광산김씨가 고성에서, 경주김씨가 의귀에서 입주하여 마을세는 점점 확장되어 갔다. 토산1리 옛 이름은 북토산 또는 옷토산, 그리고 절러가름이라 했다.

1300년(忠烈王 26) 탐라현을 동도현(東道縣)과 서도현(西道縣)으로 나눌 때 토산현(兎山縣)은 동도현 지경에 있었고 대촌현(大村縣: 구 제주시)의 속현이었다. 그런 때문인지 몰라도 지금 토산1리에는 옥터라고 하는 ‘절래왓’이 전해오고 있다.

그 후 1416년(太宗 16) 5월 정의현을 건치할 때 정의현에서는 호아현(弧兒縣), 홍로현(紅爐縣)과 더불어 토산현을 소속시켰다¹³⁾

兎山(토산)은 ‘토산’의 한자차용표이다. 일찍부터 한자로 바뀐 이름이어서 훈독자로 쓰인 것인지 음독자로 쓰인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

훈독자로 쓰였으면 ‘툃기메·툃기미’ 정도의 음성형이 존재하였을법 하나 민간에서 그러한 음성형을 확인할 수 없다. 한편 土山(토산)과 吐山(토산) 등의 표기

12) 오창명, 제주도 마을이름의 종합적 연구Ⅱ,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7, p764~765.

13) 오창명, 제주도 마을이름 연구,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4, p.397~399.

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앞의 兎山(토산)의 兎(토)자를 훈독자 또는 음가자 표기로 볼 수 없다.

곧 兎(토)는 ‘툃기>토끼’와 관계없는 음가자 표기로 보인다. 土(토)와 吐(토)는 ‘토’의 음가자 표기이다.

결국 兎山(토산)이나 土山, 吐山(토산) 등은 ‘뫏미·뫏메>툃미·툃메’ 정도의 음성형을 반영한 표기로 보인다. 그러나 ‘뫏미·뫏메>툃미·툃메’의 음성형도 민간에서 확인할 수 없다.

토산1리의 옛 이름은 ‘북토산’ 또는 ‘웃토산’, ‘절려가름’이라 하였다. 兎山(토산)에는 일찍부터 ‘토산봉수’가 있었다.

고려시대에 兎山縣(토산현)이라 하다가 조선 초기와 중기에는 兎山里(토산리), 土山里(토산리) 등으로 표기하다가, 조선 후기에는 兎山村(토산촌)과 兎山里(토산리)로 표기하였다.

마을 서쪽으로 내가 흐르는데, 옛 문헌과 지도에는 兎山川(토산천)으로 표기하였다. 兎山川(토산천)은 ‘토산내’의 한자차용표기로, 웃토산 서쪽에서 알토산 서쪽으로 이르는 내를 이른다.

오늘날 지도에는 ‘松川(송천)’으로 표기하였다. 松川(송천)은 ‘솔내’의 한자차용표기인데, ‘솔내’라는 이름도 일찍부터 쓰였다.

18세기 말에 와서는 정의현 중면 토산리라 하였고, 1910년 8월 29일 한일합방으로 1914년 행정구역 폐합시에 정의군은 폐지되었다.

1915년에는 제주도(濟州島) 동중면 토산리라 하였고, 1935년 4월에는 동중면이 표선면으로 개칭되었다. 1945년 8월 15일에 조국이 광복되자 1946년 월 1일 제주도(濟州道)남제주군 표선면 토산리가 되었다.

일제강점기 1:50,000 지형도에 兎山里(토산리:토산마을), 北兎山(북토산:북토산·웃토산), 月旨洞(월지동:들머리)이라 하였다. 北兎山(북토산)은 ‘북토산’ 또는 ‘웃토산’의 음독자 결합 표기로, 북쪽에 있는 토산이라는 뜻이다.

위쪽에 있는 토산이라는데서 ‘웃토산’이라고도 한다. 지금 토산1리 중심 마을을 이른다. 月旨洞(월지동)은 ‘들믈르’의 한자 차용표기이다. 月(월)은 ‘들’의 훈독자 표기, 旨(지)는 ‘믈르>믈르’의 훈독자 표기, 洞(동)은 ‘골’ 또는 ‘동네’의 훈독자 표기이다. 민간에서는 ‘들믈르·툄믈르’라고 한다.

1940년대 말부터 ‘웃토산’과 ‘절러가름’, ‘들믈르’와 ‘물곰는뱃’일대를 ‘토산1리’라 하여 분리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절러가름’의 ‘절러’의 뜻은 확실하지 않다. ‘가름’은 ‘가르다’의 명사형으로, 원래 ‘길이 두 세 갈래로 갈린 곳’의 뜻인데 제주도에서는 점차 갈림길 주변에 형성된 마을을 뜻하는 말로 변화하였다.

‘절러왓가름’이라고도 하는데, ‘절러’는 ‘절(寺)’과 관련시키고 있다. 실제 고려 말에서 조선 초의 절터로 추정되는 곳도 있으나 어떤 절이 있었는지 확실하지 않다.¹⁴⁾

1943년에는 마을 행정구역을 토산 1구와 토산 2구로 나누었는데 이를 토대로 하여 광복 후인 1948년에는 토산1리와 토산2리로 행정리를 분리하게 되었다.

1948년 4.3사건이 일어나자 웃토산(토산1리) 주민들은 소개령에 따라 12월 12일 해안마을인 알토산(토산2리)으로 내려갔다.

그러나 그 달 18일과 19일 어간에 웃토산과 알토산 주민 160여명과 일부 처녀들을 토벌대가 무참하게 학살시킨 참사가 일어났다.

그로부터 무려 3년이 지나야 웃토산은 다시 재건할 수 있었다. 토산1리는 현재 본동과 월지동 등 2개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다.¹⁵⁾

본동은 토산리의 중심마을로 ‘가름동네’라고 하고, 월지동(月旨洞)은 가시오름(가세오름) 서남쪽 ‘들믈루’일대에 형성된 마을이다.

14) 오창명, 제주도 마을이름의 종합적 연구Ⅱ,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7, p767~768.

15) 남제주문화원, 남제주군의 문화유산, 일신옵셋인쇄사, 2006, p1035.

9. 토산2리의 설촌유래

토산2리는 토산봉 남쪽 해안, 신흥1리 동쪽 바닷가에 위치하며 표선면의 맨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지금으로부터 500여 년 전에 목은가름 일대에 순흥안씨(順興安氏)가 가시리에서, 광산김씨(光山金氏)가 토산



1리에서 들어왔고, 그 다음 경주김씨(慶州金氏)가 물 굽는 밭에 들어와 살면서 마을이 확장되었다.

토산리의 옛 이름은 남토산, 알토산 등으로 불리었고, 18세기 말에는 정의현 중면 토산리라 하였다. 兎山浦(토산포)는 ‘도산개>토산개’의 한자차용표기로, 토산2리 바닷가 일대의 개를 이른다.

일제강점기 1:50,000지형도에 ‘廣浦(광포)’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넓은개(넓은 개)’의 한자차용표기이다.

토산2리 동쪽 바닷가에 있는 개를 이른다. 이 개 가까이에 있는 동네를 ‘넓은갯동네’(廣浦洞)라 한다.

예전 ‘토산개’는 지금의 ‘넓은개’ 일대를 이르는데 지금은 ‘넓은개’ 동쪽 ‘집탁개’ 일대에 작은 포구를 마련하였다. ‘집탁개’는 ‘집터앞개’의 준말이라고 한다.

南兎山(남토산)은 ‘남토산’ 또는 ‘알토산’의 음독자 결합 표기로, 남쪽(아래쪽)에 있는 토산이라는 뜻이다.

아래쪽(토산개 주변)에 있는 토산이라는데서 ‘알토산’이라고도 한다. 곧 ‘알토산 마을’이라 하여 南兎山(남토산)으로 썼다. 지금도 토산2리는 ‘알토산마을’이라 한다.¹⁶⁾

1910년 8월 29일 한일합방으로 1914년 행정구역 폐합시에 정의군은 폐지되었다. 1915년에는 제주도(濟州島) 동중면 토산리라 하였고, 1935년 4월에는 동중면이 표선면으로 개칭되었다. 1945년 8월 15일에 조국이 광복되자 1946년 월 1일 제주도(濟州道)남제주군 표선면 토산리가 되었다.

1943년에는 마을 행정구역을 토산 1구와 토산 2구로 나누었는데 이를 토대로 하여 광복 후인 1948년에는 토산1리와 토산2리로 행정리를 분리하게 되었다.

1948년 4.3사건이 일어나자 웃토산(토산1리) 주민들은 소개령에 따라 12월 12일 해안마을인 알토산(토산2리)으로 내려갔다.

그러나 그 달 18일과 19일 어간에 웃토산과 알토산 주민 160여명과 일부 처녀들을 토벌대가 무참하게 학살시킨 참사가 일어나기도 했다.

1940년대 말부터 ‘토산개’ 주변의 ‘알토산’과 ‘넙은개’, ‘당머리’ 일대를 토산2리라 분리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토산초등학교 서쪽 일대를 ‘목은가름’이라 하는데 예전에는 이 일대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었다. ¹⁷⁾

현재 토산2리는 본동 1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본동에는 당동산 앞쪽의 ‘당머리·당앞’, ‘새동네’, ‘넙은개’ 일대의 ‘넙은개동네’ 등 3개의 동네로 나뉜다.

16) 오창명, 제주도 마을이름의 종합적 연구Ⅱ,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7, p769

17) 남제주문화원, 남제주군의 문화유산, 일신옵셋인쇄사, 2006, p1049.

10. 하천리의 설촌유래

하천리는 표선리 북동쪽 해안 일대에 형성되어 있는 해안마을로, 동쪽의 천미천(川尾川)을 사이에 두고 성산읍 신천리와 접하고 있다.

하천리는 500여 년 전 ‘묵은가름’ 일대에 위씨가 들어와 살고, 그 후 오씨와 강씨가 들어와 살면서 마을이 커졌다고 한다.



하천리의 옛 이름은 ‘내깍’ 또는 ‘알내깍’이라 했는데, 지금 민간에서는 ‘내끼’ 또는 ‘알내끼’라고 한다.

하천리는 약 500여년 전 하천리 상동(묵은가름)에 위씨(魏氏)가 설촌하였고 그 후 오씨(吳氏)와 강씨(康氏)가 들어오면서 중동(방상동네:강씨가 집단으로 사는 동네라는 뜻), 하동(넓밭:평원이라는 뜻) 등으로 마을이 확장되어 갔다.

그 후 오씨는 대부분 신평리로 이주하였고 위씨는 번성하지 못하였으며 현재 강씨와 송씨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중종실록』 (5년 9월 기사)과 『탐라도』, 『탐리순력도』 (『한라장축』) 등에서 ‘내깍개 [川尾浦]’를 확인할 수 있다.

마을 이름은 1709년의 『탐라지도』 와 18세기 중반의 『제주삼읍도총지도』 등에서 ‘내깍마을(川尾村)’로 표기되고, 18세기 후반의 『호구총수』 (정의, 촌읍면) 와 『제주읍지』 (정의현지, 방리, 좌면) 등에서 ‘알내깍마을 [下川尾里]’로 표기

되었다.

19세기의 『제주삼읍전도』와 『정의군지도』, 『정의읍지』(『정의지도』)와 『제주군읍지』(『제주지도』) 등에 ‘알내각믈 [下川里]’로 표기하였다. ‘내각개’는 한자차용표기로 川尾浦(천미포)로 쓰는데, ‘내각내(川尾川)’ 하류에 있는 포구를 이른다. 그 포구 일대에 형성된 마을은 ‘내각’ 또는 ‘내각믈’이라 했다.

민간에서는 주로 ‘내끼’라 하는데, ‘내의 끝’의라는 뜻을 나타내는 제주어 ‘내각’의 변음이라 할 수 있다. 성적의 맨 끝이라는 뜻을 가진 ‘꼴등’에 대응하는 제주어 ‘각등’, ‘꼴찌’ 또는 ‘끝’의 뜻을 가진 제주어 ‘각’ 등에서 ‘각’을 확인할 수 있다.¹⁸⁾

이를 한자차용표기로 쓴 것이 천미촌(川尾村)이다. 川은 ‘내각’의 훈독자 표기, 尾는 끝을 뜻하는 제주어 ‘각’의 훈독자 표기이다. 민간의 ‘내끼’는 ‘내각’의 변이형이다.

‘내각믈’은 다시 ‘웃내각’과 ‘알내각’으로 나뉘었는데, ‘알내각믈’은 下川尾里(하천미리)로 썼다.

하천미리(下川尾里)는 나중에 하천리(下川里)로 써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정의군 좌면 下川里(하천리)와 新?里(신평리)의 각 일부를 통합하여 제주군 동중면 下川里(하천리)라 하였다.

이후 하천리라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하천리에는 ‘아심선이’ 또는 ‘아슴선이’라 하는 자연마을이 있었다.

한자로 我心田이라 표기하였고 ‘아심전지’라고도 하는데 그 뜻은 확실하지 않다. 2005년 12월 현재 하천리는 상동, 중동, 하동 등 3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상동은 윗동네, 중동은 중동네를 이른다. 하동은 川尾浦(천미포 : 내각개)가 있는 해안 일대에 형성된 마을이다.

18) 오창명, 제주도 마을이름의 종합적 연구Ⅱ,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7, p747

